석유화학, 3년간 14조원 설비투자

여천NCC 에틸렌 증설에 2700억원 ... LG화학 리튬전지에 1조원

석유화학기업들이 앞으로 3년간 설비투자에 14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게 된다.

석유화학공업협회는 1월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석유화학기업들이 2010년 4조7000억원을 포함 2012년까지 총 14조4000억원의 설비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여천NCC는 에틸렌(Ethylene) 증설에 2700억원을 투자하고, LG화학은 리튬전지 공장에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화석유화학은 태양광전지 공장의 신증설에 8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 2010년 197억달러의 무역흑자 달성을 목표로 총 297억달러의 수출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의 CEO들은 2010년 세계시장에서의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중국과 인디아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6.9% 증가하겠지만 중동 및 중국의 설비증설로 공급과잉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신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 여수, 대산 등 3대 석유화학단지가 고부가가치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미래형 친환경 융합 소재와 공정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15>